

생활권역 통계지도를 이용해 동일한 주행 5분이 주거지와 근무지 주변에서 얼마나 다른 수요를 담는지 실제 주소 기반으로 비교했다. 핵심 결론은 생활서비스의 범위를 시간만으로 정하지 말고, 그 안의 인구규모와 연령구조, 사업체·종사자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는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고 충북 오창에서 근무한다. 주민등록지와 평일 체류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병원, 장보기, 공공서비스 같은 일상 기능을 어느 생활권에서 해결할지 자주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행정구역 통계만 보면 실제 이동 가능한 범위가 보이지 않고, 지도에서 단순 반경을 그리면 도로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는 특정 지점에서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도달 영역을 만들고, 그 안의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 통계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준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두 지역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면서도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실제 접근권을 확인할 수 있다.

□ 추진과정

- 수원 주거지는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입구를 선택했다.
- 오창은 정확한 근무동을 공개하지 않고 SGIS에 등록된 공개 대표지점인 오창 에너지플랜트2를 선택했다.
- 두 지점 모두 주행시간 5분, 인구·가구·주택과 사업체·종사자 통계연도 2024년으로 맞췄다.
- 전체 규모와 연령대 구성, 사업체·종사자 수를 기록하고 같은 항목끼리 비교했다.

○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

활용분야는 생활권역 통계지도이며, 일상생활 속 두 거점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사례다. ‘차로 5분’이라는 말이 같아도 생활권 안의 규모와 구성은 달랐다.

항목	수원 주거지	오창 공개 대표지점	확인한 차이
기준점	고등로 15	오창 에너지플랜트2	실주소와 공개 대표점
면적	1.37㎢	2.11㎢	오창이 1.54배
인구	35,134명	14,533명	수원이 2.42배
가구	13,254가구	5,878가구	수원이 2.25배
사업체	3,430개	957개	수원이 3.58배
종사자	9,714명	6,885명	수원이 1.41배
최다 연령대	50대 18.3%	30대 25.1%	생활서비스 대상층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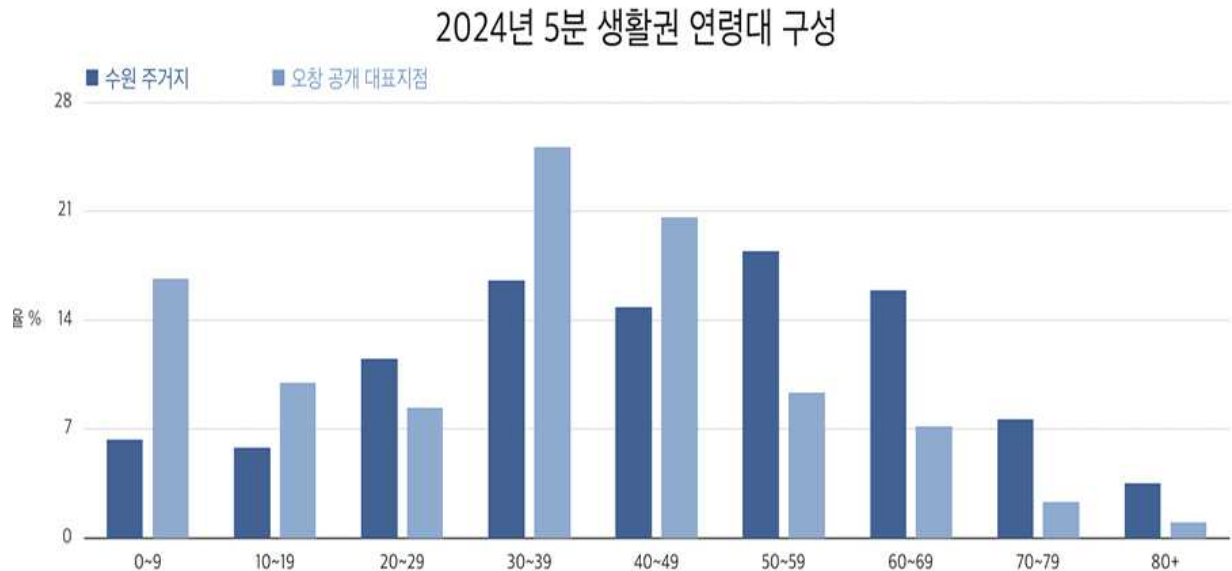
수원은 더 좁은 면적에 인구와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었다. 오창 공개 대표지점은 면적이 더 넓지만 인구와 사업체 수가 적었다. 따라서 같은 5분권이라도 시설 하나가 접하는 잠재 이용자 수와 생활업종 선택 폭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사업체 상위 업종은 두 지역 모두 음식점업이 1위였지만 인구 연령 구조는 달랐다. 생활권의 규모뿐 아니라 누가 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운영시간, 안내방식, 프로그램 대상층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추진내용

○ 연령구조 비교와 해석

수원 주거지는 50대가 18.3%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 합계가 45.2%였다. 오창 공개 대표지점은 30대가 25.1%로 가장 많고 30~49세가 45.6%였다. 0~19세 비중도 수원 12.0%, 오창 26.5%로 차이가 컸다.



수원 쪽에서는 중장년층과 고령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낮 시간 접근성, 이동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창 쪽에서는 30~40대와 자녀 세대가 많은 구조를 고려해 출퇴근 전후 시간대와 가족 단위 이용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확정된 정책 처방이 아니라 다음 조사를 어디서 시작할지 정하는 근거다.

○ 재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

- 대표지점은 실제 주소 또는 공개 시설명으로 고르고 사유를 기록한다.
- 시간·거리·반경 중 하나를 선택해 비교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통계연도를 맞춘 뒤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를 함께 기록한다.
- 전체 규모뿐 아니라 연령대와 주요 업종을 확인한다.
- 차이를 이용대상·운영시간·추가 현장조사 질문으로 바꾼다.
- SGIS가 보여주지 않는 주간인구, 실제 통근자, 시설 운영시간은 별도 자료로 보완한다.

□ 추진성과

- 두 생활권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교표를 만들었다. 면적·인구·가구·사업체·종사자와 연령대 수치를 남겨 다른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 ‘5분이면 비슷하다’는 가정을 버리게 됐다. 수원 주거지는 오창 공개 대표지점보다 인구는 2.42배, 사업체는 3.58배였다.
- 개인의 이중생활권을 생활서비스 기획 질문으로 바꿨다. 주거지에서는 중장년·고령층 접근성을, 오창에서는 30~40대와 가족 단위 이용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게 됐다.